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조사위)가 감춰지고 조각나 있던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찾고자 지난 4년간 공식 활동 결과가 담긴 보고서를 공개했다.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오염된 사료와 항쟁 44년이 되도록 기승을 부리는 왜곡·폐쇄 시도 속에서도 실제적 진실 찾기에 힘써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그러나 진상 규명의 핵심인 발포 명령자와 희생자 암매장 실체는 명백히 밝혀내지 못해 또 다시 숙제를 남겼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국가 차원의 진상 규명으로 관심을 모았던 조사위가 남긴 성과와 향후 과제를 세 차례에 걸쳐 되짚어 본다.<편집자주>

“왜 쏘았지, 왜 찔렀지” 조각난 5·18 진실, 44년 만에 맞추나<상>

총 쏜 계엄군 2857명 직접 조사 ‘발포 명령’ 전두환 정황만 무성 항쟁 과정서 숨진 민간인 166명

3일 조사위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위는 항쟁 참여 시민들에게 직접 총을 쏜 계엄군 대상 조사로 희생자 사망 경위 등 대다수 과제에 대해 ‘진상 규명’ 결론을 내렸다.

발포 명령자가 전두환이었음을 가리키는 정황은 파악했지만, 자세한 발포 경위·책임자는 못 밝혀냈다.

◆ ‘총 쏜 계엄군들’ 직접 조사했다

조사위는 지난 2018년 제정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듬해 12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27일까지 4년간 공식 활동을 벌였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와 국회 5공·광주청문회, 검찰 조사 등에서 풀리지 않은 의혹을 풀고 국민 대통합을 이루자는 취지였다.

발포 명령자 특정, 행방불명자 소재, 암매장 사실 여부 등 21개 과제에 대한 직권 조사에 나서 기대를 모았다. 특히 그동안 깊게 다뤄지지 않았던 계엄군에 대한 이른바 ‘상향식 조사’를 벌여 눈길을 끌었다.

조사위는 5·18 당시 투입된 계엄군 2만 300여 명 중 2857명을 만나 증언을 들었다. 그 결과 희생자 암매장을 직접 보고 듣거나 직접 실행한 이들의 다양한 진술, 발포 명령에 대한 새로운 증언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조사위는 활동 종료 시점까지 직권 조사 사건을 대부분 진상 규명했다. 다만 6건은 규명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군 발포 경위·책임 소재 ▲암매장지 소재, 유해 발굴·수습 ▲국방부·군 기관·국가정보원 등에 의한 5·18 은폐·왜곡 ▲전남 일원 무기고 폐쇄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 ▲5·18 작전 참여 장비 과 시위 진압 경찰관의 사망·상해 등이다.

◆ 발포 명령자는 ‘전두환’ 정황만

조사위는 강경 진압의 책임이 전두환을 가리키는 정황을 다수 발견했으나 구체적인 발포 경위는 밝혀지지 못했다.

조사위는 당시 군 핵심 관계자 82명 중 절반가량을 조사했다. 권정달 보안사 정보처장과 이용린 정보처 과장은 “전두환에게 (5·18 관련) 총체적 책임이 있다”, “12·12 반란 이후 전두환 지시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다” 등의 증언을 남겼다.

박경석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차장도 “발포 명령은 문서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 일급 정보이고 보안사 계통에서 지시가 간 것이기 때문이다. 5·18 총 책임자는 만인이 아는 것처럼 전두환”이라고 강조했다.

문건에서도 전두환의 지시 정황이 재확인됐다. 육군 2군사령부 ‘광주군 총정작전 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 1980년 5월 23일 자 문건에는 ‘자위권 발동 강조’, ‘閣下(각하)께서 Good idea(굿 아이디어)’라는 손 글씨가 적혀 있다.

해당 문건이 작성된 국방장관실 회의에 참석한 전두환은 당시 합수본부장 자격으로 광주 시위 진압 과정을 보고 받았다.

동석한 김준봉 2군 작전사령부 작전처장이 ‘굿 아이디어’라고 쓴 것으로 유력 추정된다. 김 처장은 회의 참석 사실을 시인, 전두환의 강경 진압 지시 정황이 보다 뚜렷해졌다는 분석이다.

다만 현장 지휘관 중 누가 명시적으로 발포를 지시했는지 밝혀지지 못했다. 조사위는 5월 20일 밤 ‘진도대 게’ 발령과 함께 계엄군들에게 실탄이 분배, 이를 발포 명령으로 알아들은 일부가 광주역 앞 시위대에 사격한 것으로 봤다.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시민군과 계엄군 사이에서 유혈 충돌이 벌어진 1980년 5월 21일(부처님오신날) 봉족탑이 서 있는 전남도청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연일 민주항쟁 범시민결기대회가 열리고 있다. 총탄에 찢기고 부서진 봉족탑이 그날의 혈전을 말해주는 듯하다. 박태홍 뉴시스 편집위원이 1980년 당시 한국일보 사진기자로 재직 중 5·18 광주 참상을 취재하며 기록한 사진을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에 즈음해 최초로 공개한다. (사진=한국일보 제공)

5월 21일 오후 전남도청 앞 집단 사격 역시 끝내 결론내리지 못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중령 대대장’ 지시였다는 진술, 애국가와 함께 발포가 시작됐다는 등 증언이 있었지만 자세한 경위가 밝혀지지 않았다.

◆ 열흘간 항쟁으로 166명 숨져

무자비 진압으로 항쟁 기간인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는 166명으로 잠정 파악됐다.

조사위는 희생자들의 사망 유형을 낫자·장소·성·나이·사인 별로, 계엄군 작전에 따라 구분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희생자 166명 중 135명(81.3%)이 총상으로, 17명은 구타 등에 의해 숨졌다. 12명은 차량에 의한 사망이다.

전체 희생자 중 73.5%는 10대와 20대가 차지했다. 14세 이하 미성년자는 8명, 50대 이상 중·장년도 11명에 달했다.

사망 장소를 특정하지 못했던 희생자 47명 중 43명이 어디서 숨졌는지도 밝혔다. 최초 총상 사망자도 다시 규명됐다. 그간 둔기 등에 의한 사망으로 알려진 김안부 열사는 5월 20일 광주역 집단 발포보다 하루 전인 19일 오후 10시 이후 총상으로 숨진 것으로 정정됐다.

계엄군 조준 사격도 밝혀냈다. 5월 21일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 사망자 중 최소 7명은 주변 전일빌딩 등 고층 건물에 배치된 계엄군 조준 사격으로 숨졌다.

조사위는 광주지검 검시 조서에 카빈(시민군 총기) 총상 사망자로 분류된 26

명 모두 당시 군 제식 총기인 M16에 맞아 숨진 것으로 바로잡았다.

끝내 의혹으로 남은 과제도 있다. 5월 21일 오후 버스를 몰고 전남도청에 돌진하다 총격으로 숨진 기사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다. 20일 광주역 앞에서 발생한 민간인 시신 처리 협조를 바란다는 군 기록 이후의 일은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위는 추가 희생자 가능성도 높지만 한시 기구로서 활동 제약이 있어 충분히 조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수권 기자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천로 213스카이랜드 309호	
발행인·편집인 김순열 편집국장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유동3길 26 서주빌딩 101호	(061) 905-2011	
서부취재본부	전남 나주시 왕건길 33-14	(061) 333-0805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영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